

## 김광현, 메이저리거서도 선발로 뿔까

‘선발 로테이션 중후반 vs 불펜’ 의견 분분



SK 와이번스에서 선발 에이스로 활약했던 김광현(31)이 메이저리그에선 어떤 보직을 맡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 뉴욕 지역 매체 엘리트스포츠뉴욕(ESNY)은 27일(한국시간) 스카우트들은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역할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스카우트 중 일부는 김광현이 선발 로테이션 중후반에 뛰는 게 제격이라 말하고 일부는 불펜에서 활약이 더 나은 것이라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광현은 2021시즌까지 SK와 FA 계약이 남아있으나 22일 SK 와이번스의 메이저리그 진출

허가를 받았다.

2007년 KBO리그에 데뷔한 김광현은 올해까지 통산 298경기에 등판해 136승 77패 평균자책점 3.27를 올린 좌완 에이스다. 데뷔 이후 13시즌간 SK 유니폼만을 입었고 4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은 “김광현에게 뉴욕 메츠 캔자스시티 로열스, LA 다저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시카고 컵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현이 메이저리그 무대로 향할 가능성은 커보이지만 문제는 보직이다. 미국 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이달 초 FA 랭킹에서 김광현을 FA 41위에 올리고 5선발 혹은 스윙맨 역할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뉴욕 지역 매체에서는 뉴욕 메츠가 김광현의 영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직에 대한 역시 의견이 나뉜다.

스포츠넷 뉴욕(SNY)은 26일 김광현이 뉴욕 메츠의 5선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고 ESNY는 27일 김광현의 슬라이더는 빅리그에서도 통할 것이라며 선발, 구원 어떤 역할이든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 박인비·청야니·고진영 등 10년간 LPGA 최고의 선수는?

내달 2일부터 팬투표

10년간 최고의 여자 골프 선수를 가리는 팬 투표가 진행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는 27일(한국시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가리는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LPGA투어는 지난 10년간 메이저대회 우승이 있거나 세계랭킹 1위에 오른 경험이 있는 선수 16명을 선정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확보한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다.

투표는 LPGA투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되고 현지시간으로 12월2일 시작된다. 최종 결승전은 2020년 1월6일과 7일 투표가 진행돼 10년간 최고의 활약을



박인비

펼친 여성 골퍼가 선정된다.

16명 후보 중 한국 선수는 1번 시드를 받은 박인비(31·KB금융그룹)를 비롯해 총 6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하이트진로)은 7번 시드, 박성현(26·솔레이)은 8번 시드, 유소연(29·메디힐)은 9번 시드, 최나연(32·SK텔레콤)은 13번 시드, 전인지(25·KB금융그룹)는 15번 시드다.

뉴스1

## “축구선수는 안 힘들다고?”

## 손흥민 다른 수식어 ‘체력왕’

A매치 2연전 포함 최근 5경기 풀타임...모리뉴 신임 두둑

“축구 선수라고 지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잡아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선수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다.”

과거 황선홍 감독이 전한 말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전제를 깔고 칭찬을 전한 인물은 박지성이었다. 황 감독은 “지성이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축구를 했던 사람인데도 놀라울 때가 있다. 선수들이 더 잘 안다. 저쪽이면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지성은 기어이 한 걸음 두 걸음을 더 뛴다”며 혀를 내둘렀다.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세계 최고의 무대로 평가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톱클래스 미드필더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체력’이 큰 역할을 했다. 방대한 활동량과 이타적인 움직임으로 세계적인 별들이 요소 요소 지리 잡고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그런 캐릭터는 앞으로도 찾기 쉽지 않다.

박지성 은퇴 후 한국 축구의 다음 상징으로 자리 잡은 선수를 꼽으려면 단연 손흥민이다. 포지션이 다르니 당연히 스타일도 차이가 있다. 빠른 주력과 화려한 드리블,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킥 등을 앞세워 EPL 정상급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박지성에 비하면 더 화려하지만, 사실 체력적인 면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선수다. 특히 최근 행보를 보면 ‘체력왕’ ‘강철 체력’ 등의 수식어도 아깝지 않다.

토트넘은 2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올림피아코스(그리스)와의 2019-2020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에서 4-2로 승리했다. 2골을 먼저 내주며 끌려갔으나 4골을 몰아쳐 승부를 뒤집었다.

이날 선발 날개 공격수로 출전한 손흥민은 풀타임을 활약하면서 신임 모리뉴 감독 체제에서도 확실한 주전임을 다시 입증했다. 그리고 2-2 팽팽하던 순간 중요한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6번째 도움과 함께 15개 공격포인트(9골)를 쌓았고 동시에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작성에도 성공했다.

지난 23일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서 1골1도움을 기록하며 모리뉴 감독

에게 첫 승을 선사한 손흥민은, 당시 경기에 비해서 가시적인 활약상은 없었으나 새로운 체제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는 플레이를 펼쳐왔다. 공격진들과 유기적인 호흡을 보이다가도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돌파하는 등 몹을 해냈다.

손흥민은 모리뉴 부임 후 두 번째 경기에서도 풀타임을 뛰었다. 동시에 최근 5경기 연속 풀타임이다. 그중에는 유니폼을 한국 대표팀으로 바꿔 입고 소화했던 2경기도 있다. 중동에서 펼쳐진 11월 A매치 2연전을 위해 벤투호에 합류했던 손흥민은 14일 레바논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4차전과 19일 브라질과의 평가전 때 모두 풀타임 필

드를 누볐다.

포제티노 감독의 토트넘 마지막 경기였던 10일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포함하면 5번의 경기를 단 1번의 교체 없이 필드를 누볐다. 한 국가대표팀 일정으로 비행 여정이 있었다는 것, 세계 최강 브라



질

과 맞

섰다

는 것,

소속

팀 감독이

교체되는 상

황에서 집중력

을 더 높였어야했다

는 것 등 피로도가 컸을 상황인

데 차질 없이 소화하고 있다.

손흥민의 강철 체력은 이미 지

난 시즌에도 입증됐다. 손흥민은 러

시아 월드컵, 지카르타-팔렘방 아시

안게임, AFC 아시안컵 등 한국대표

로 메이저 토너먼트 대회를 3번이나

뛰면서도 토트넘 일정에 빠진 적 없

었다. ‘혹사 논란’ ‘강행군’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작은 부상도 없이

시즌을 마쳤다. 이쯤이면 인정해줘

야 할 체력과 정신력이다.

축구대표팀의 한 관계자는 “세계

적인 레벨에 올라섰으나 지금도 손

흥민은 훈련장에서 게으름 피우는

범이 없다”면서 “실력과 인성을 다

갖췄다. 저런 성실함이 지금의 위

치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고 칭

뉴스1

명품하는 행복의군만

화순군  
HWASUN-GUN

임대성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시

#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성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시→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